

# 다니엘서 - 88번

거짓 늦은 비의 실체를 드러내다: 2001년 9월 11일부터의 예언적 여정

Jeff Pippenger

2024-02-21

천사가 내려올 때 시작되는 시험 과정은 천사의 손에서 책을 가져다 먹을 것인지를 시험으로 표현된다. 그 메시지를 먹기로 선택한 이들은 결국 실망을 겪도록 예정되었고, 먹기를 거부한 무리는 뒤에 남겨졌다. 먹어야 할 그 '작은 책'은 '끝의 때'인 1798년이나 1989년에 처음 봉인이 풀린 그 메시지에 대한 '지식의 증가'를 상징했으며, 이후 그 증가된 지식의 빛 앞에서 당시 살아 있던 세대에게 책임을 지우는 메시지로 체계화되었다. 어느 역사에서든 이슬람에 관한 예언이 성취되면, 천사의 손에 들려 있어 먹어야 할 그 메시지는 받아들여지거나 거절되었다. 그 책이 대표하는 메시지를 거절하고도 여전히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한 자라는 주장을 유지하려는 이들은 가짜 '늦은비' 메시지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게 된다.

2001년 9월 11일에 재림주의 여러 세대에서의 과거 반역들이 다시금 시험의 쟁점이 되었다. 하박국 2장은 그 안에 제시된 예언적 역사에서 일어나는 논쟁을 지적하는데, 이는 열 처녀 비유에 병행하는 예언의 선이다. 열 처녀 비유의 역사 속에서 파수꾼이 무엇이라 대답해야 하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라"는 명령을 받았다. 밀러주의 역사 속의 파수꾼들은 1842년에 1843년 도표를 제작했고, 그 제작은 하나의 이정표가 되었다. 그것은 판에 분명히 새겨져 마지막에 말하게 되어 있던 하박국 2장의 "묵시"였다.

2001년 9월 11일 직후, 셋째 화의 이슬람 활동을 알아본 이들은 예레미야의 '옛 길'로 돌아가 그 길을 행하도록 인도되었다. 그 '옛 길'은 계시록 8장 13절의 세 화가 이슬람의 예언적 역할을 나타낸다는 것을 밝혀 주었다. 이어서 곧, 퓨처 포 아메리카는 밀러주의자들의 병행 역사에서 바로 같은 지점에서 하박국 2장의 두 도표를 재제작하기 시작했는데, 그 두 도표는 이정표로 제시되었고, 이는 1842년에 1843년 도표를 제작함으로써 대표되었던 것이다.

1842년 5월,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서 총회가 소집되었다. 이 회의의 개회 때, 헤이버힐 출신의 형제들인 찰스 피치와 아폴로스 헤일은 천에 그려 만든 다니엘과 요한의 예언 도표를, 예언의 숫자들을 함께 표기하여 그 성취를 보여 주는 형태로 제시하였다. 피치 형제는 총회 석상에서 자신의 도표로 설명하면서, 이 예언들을 살피는 동안 여기 제시한 것과 같은 것을 만들어 낼 수만 있다면 주제가 단순해져 자신이 청중에게 제시하기가 더 쉬워질 것이라고 생각했었다고 말했다. 여기 우리의 길에 더 큰 빛이 있었다. 이 형제들은 주께서 2,468년 전에 환상 가운데 하박국에게 보여 주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묵시를 기록하여 그것을 판에 분명히 새겨, 읽는 자로 달려가게 하라. 이 묵시는 아직 정한 때를 위함이니라." 하박국 2:2.

"그 주제에 대해 얼마간 논의한 뒤, 이와 같은 것을 석판 인쇄로 300매 제작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되었고, 곧 실행되었다. 그것들은 '43 도표'라고 불렸다. 그 회의는

매우 중요했다." 조지프 베이츠의 자서전, 263쪽.

"'원래의 믿음' 위에 서 있었던 재림 강연자들과 신문들의 일치된 증언은, 도표의 출판이 하박국 2:2, 3의 성취였다는 것이었다. 만일 그 도표가 예언의 한 주제였다면(그리고 그것을 부인하는 자들은 원래의 믿음을 떠나는 것이다), 그러면 2300일의 기산 연도는 기원전 457년이어야 한다는 결론이 따른다. '그 이상'이 '더달' 것, 곧 더디는 때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1843년이 처음으로 공표된 시점이 되는 것은 필수적이었다. 그 기간 동안 처녀 무리는, 한밤중의 외침으로 일깨움을 받기 직전에, 시간에 관한 이 중대한 주제에 대하여 졸며 잠들어 있어야 하였다." James White, Second Advent Review and Sabbath Herald, Volume 1, Number 2.

"이제 우리의 역사는 윌리엄 밀러가 그러했듯 동일한 연대 도표를 바탕으로 가르치던 사람들이 수백 명 있었고, 모두 같은 부류였음을 보여 준다. 그때 그들의 메시지는 하나로 일치했으며 주제도 하나였으니, 곧 주 예수께서 정해진 때인 1844년에 오신다는 것이었다." Joseph Bates, Early SDA Pamphlets, 17.

1843년과 1850년 도표들의 재인쇄는, 2001년 9월 11일 직후의 역사 속에서, 1842년에 1843년 도표가 출판된 것에 못지않게 하박국 2장의 성취였다. 그 도표들의 제작은 하박국 2장의 서사의 일부이며, 반드시 일어나야 했다. 2001년 9월 11일, 예레미야의 "옛 길"로 돌아가기를 거부한 라오디게아적인 재림교인들에 의해 1863년의 반역이 다시 되풀이되었다.

"원수는 이 마지막 날들에 설 백성을 준비시키는 일에서 우리 형제자매들의 마음을 돌이키려 하고 있다. 그의 꾀변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 시대의 위험과 의무에서 떠나게 하도록 고안된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오셔서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요한에게 주신 빛을 하찮은 가치의 것으로 여긴다. 그들은 바로 우리 앞에 있는 장면들이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만큼 충분히 중요하지 않다고 가르친다. 그들은 하늘에서 비롯된 진리를 무효로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그들의 지난 경험을 빼앗으며, 그 대신 거짓 과학을 준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고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물어서 그리로 걸으라.' [예레미야 6:16]"

아무도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허물어뜨리려 해서는 안 된다—곧 우리의 사역이 시작될 때, 말씀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구하고 계시를 통해 놓인 그 기초를. 우리는 이 기초 위에 50년이 넘도록 사역을 세워 왔다. 사람들은 새로운 길을 찾았다고, 이미 놓인 것보다 더 견고한 기초를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이것은 큰 속임수이다. '이미 놓인 것 외에 다른 기초를 아무도 놓을 수 없다.' [고린도전서 3:11.] 과거에도 많은 이들이 새 신앙을 세우고 새로운 원칙을 확립하려고 했으나, 그들의 건축물이 얼마나 오래 서 있었는가? 곧 무너졌다. 그것은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증언, 제8권, 296, 297쪽.

예레미야는 '옛 길'을 걷는 것이 '침'을 찾는 것임을 밝히며, 그 '침'이 곧 '늦은 비'라고 말한다. 이 '늦은 비'는 2001년 9월 11일 뉴욕시의 거대한 건물들이 무너져 열국이 분노했을 때 시작되었다. 그때 그 메시지를 먹은 자들은 '환상을 기록하고 분명히 하라'는 하박국의 파수꾼이 되었다. 예레미야는 바로 그 동일한 파수꾼들을 '침', 곧 '늦은 비'의 때에 지목한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가에 서서 보고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물어서 그리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안식을 얻으리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그리로 행하지 아니하리라 하였고,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들을 세우며 이르기를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였으나,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예레미야 6:16, 17.

그들이 불어야 했던 나팔은 밀러주의 역사에서는 둘째 화의 여섯째 나팔이고, 말세에는 셋째 화의 일곱째 나팔이다. 하박국의 파수꾼들, 곧 예레미야의 파수꾼들은 경고의 기별을 나팔로 불어 알렸으나, 그 기별은 1888년의 반역 때 거절되었다. 1888년에 거절된 여섯째 나팔은 라오디게아를 향한 기별이었다.

"A. T. 존스와 E. J. 왜거너가 우리에게 전해 준 기별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기별이며, 진리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빛을 다른 이들에게 비추지 않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1888 자료, 1053.

1888년의 일곱째 나팔 메시지는 1856년에 처음으로 라오디게아에게 울려 퍼졌고, 이어서 라오디게아의 메시지는 '일곱 때'의 점점 더해지는 빛이라는 맥락 속에 놓였다. 2001년 9월 11일, 예레미야의 옛 길로 돌아가 그 안에서 행하여 늦은비의 메시지를 얻으라는 부르심에는, 라오디게아에 대한 메시지로 표현되는 일곱째 나팔의 경고 메시지와 기초를 상징하는 '일곱 때'가 포함되었다.

바울이 언급한 '강한 미혹'을 일으키는 것으로 예언에 의해 지목된 그 '거짓'은 여선지자가 죽은 지 16년이 지난 1931년에 라오디게아적 재림주의의 제3세대 안에 심어졌다. 제3세대에 들어온 그 '거짓'은 예언에서 '담무스를 위해 우는 여인들'로 표상된 시기에 해당하며, 따라서 거짓 늦은비 메시지와 연관되어 있다.

"거짓"이 어떻게 퍼져 나갔는지에 대한 세부 사항을 이해해야 하며, 종말 예언에서 "거짓"이 수행하는 예언적 역할 또한 이해해야 한다. 늦은비의 때, 곧 십사만 사천인의 인침의 때에 예루살렘을 지배하는 조롱하는 자들은, 에스겔 8장에서 "담무스를 위하여 우는 여인들"로 대표되듯, 재림주의 제3세대에 거짓 늦은비 기별을 만들어냈다. 그들의 거짓 늦은비 기별은 에스겔에 의해 거짓된 기초, 거짓된 보호의 담, 그리고 거짓된 평안과 안전의 기별로도 묘사되어 있다.

너희가 헛된 환상을 보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면서 거짓 점괘를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너희가 헛된 말을 하고 거짓을 보았으므로, 보라, 내가 너희를 대적하노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헛것을 보고 거짓으로 점치는 선지자들에게 내 손이 임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의 회중 가운데 있지 못할 것이며, 이스라엘 집의 명부에 기록되지도 못할 것이며,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지도 못할 것이다. 그때에 너희는 내가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는 그들이 내 백성을 미혹하여 말하기를 '평안하다' 하나 평안이 없었음이라. 어떤 이는 담을 쌓았고, 보라, 다른 이들은 그것을 허술한 회반죽으로 발랐다. 그 허술한 회반죽을 바르는 자들에게 말하라. 그것이 무너질 것이라. 넘쳐 흐르는 폭우가 쏟아지고, 큰 우박이 떨어지며, 사나운 바람이 그것을 찢으리라. 보라, 그 담이 무너질 때에 사람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바른 회반죽이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내가 분노 중에 사나운 바람으로 그것을 찢고, 진노

중에 넘치는 소나기를 내리며, 분노 중에 큰 우박을 내려 그것을 소멸하리라. 내가 너희가 허술한 회반죽으로 발라 둔 그 담을 이렇게 허물어 땅에 넘어뜨려 그 기초가 드러나게 하고, 그것이 무너져 너희가 그 한가운데에서 멸망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그 담과 그것에 허술한 회반죽을 바른 자들 위에 내 분노를 이루고 너희에게 이르기를, 담도 없고 그것을 바른 자들도 없도다 하리라. 곧 예루살렘에 관하여 예언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본다 하나 평안이 없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두고 하는 말이라, 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 13:7-16.

이사야 28장과 29장에서 예루살렘의 조롱하는 자들이 그 아래에 숨는 허위와 거짓은 결국 "넘쳐 흐르는 채찍"에 의해 심판되고 멸망된다.

또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추로 삼으리라.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쓸어버리고, 물이 은신처를 넘쳐 덮으리라. 너희가 사망과 맺은 언약은 무효가 되고, 음부와 맺은 계약은 서지 못하리니, 넘치는 채찍이 지나갈 때 너희는 그것에 짓밟히리라. 이사야 28:17, 18.

이사야의 '넘치는 채찍'은 에스겔의 '넘치는 소나기'로, '헛된 환상'을 제시하고 '주께서 말씀하셨다'고 주장함으로써(주께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음에도') '거짓을 점친' 자들에게 내려지는 것이다. 그 옛 사람들이 그 아래 숨는 '거짓'은 주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들이 주장하는 어떤 것으로 나타나므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짓'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한 교리를 오류로 지목했거나, 혹은 성경의 한 교리에 관해 하나님이 그들의 이해를 인도하셨다(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잘못 주장한 것이다.

1931년에 등장한 그 "거짓말"은 화이트 자매가 다니엘서의 "the daily"에 대한 거짓 견해를 지지했다는 주장이었다. "the daily"가 그리스도의 성소 사역을 나타낸다는 그 거짓 견해는, 1910년에 엘렌 화이트가 A. G. 대니얼스에게 그와 프레스콧이 "the daily"를 그리스도의 성소 사역으로 보는 견해가 실제로 옳다고 알렸다고 주장하는 "거짓말"에 근거하고 있었다. 그녀의 직접적인 서면 진술과 모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1931년) 라오디게아적 재림주의 내에서 확립된 "the daily"에 대한 그릇된 견해는, 에스겔이 "평안과 안전"이라고 묘사한 한 기별을 세우는 데 사용된 신학적 토대가 되었다. 그 거짓된 토대를 지탱하기 위해 동원되는 갖가지 주장들은, 밀러가 꿈에서 보았던 여러 가지 가짜 동전과 보석들이다. 그의 꿈의 끝 무렵에는 그의 원래 보석들이 모조품과 잡동사니로 완전히 뒤덮인다. 그리고 그 잡동사니와 가짜 보석들과 동전들은 "the daily"가 그리스도의 성소 봉사를 가리킨다는 그들의 근본적 오류에 기초한 그 기별을 상징한다.

에스겔서의 구절에서 쓰레기와 가짜 보석은 "사나운 바람"이나 "퍼붓는 소나기"의 압력을 견디지 못할 만큼 약한 시멘트로 쌓아 올린 "벽"으로 비유된다.

여로보암을 책망했던 유다에서 온 불순종한 선지자는 결국 "나귀"와 "사자" 사이에서 죽었다. 사자는 바벨론을, 나귀는 이슬람을 상징한다. 불순종한 선지자의 죽음으로 대표되는, 라오디게아적 재림주의가 보지 못하는 두 교리는 교황권의 메시지(사자)와 셋째 화의 이슬람의 메시지(나귀)이다.

에스겔의 "회오리바람"은 이사야 27장에서 "동풍이 부는 날"의 "그치게 된 거친 바람"의 상징이다. 에스겔의 "회오리바람"은 또한 하나님의 종들이 인침을 받기까지 붙잡혀 있는 요한계시록 7장의 "네 바람"이기도 하다. 에스겔의 "회오리바람"은 37장에서 "네 바람"에게서 온 그의 기별로서, 죽은 마른 뼈들을 큰 군대로 살려낸다. "회칠한 담"을 무너뜨리는 에스겔의 "회오리바람"은 셋째 화의 늦은비 기별이다.

에스겔의 "넘치는 소나기"는 교황권의 상징이며, 더 구체적으로는 미국에서 곧 시행될 일요일법에서 시작되는 일요일법 위기의 기간을 상징한다. 나귀와 사자 사이에서 죽은 유다 출신의 불순종한 선지자는, 나귀(셋째 화)가 도착한 2001년 9월 11일과 곧 다가올 일요일법(사자) 사이에 일어나는 라오디게아적 재림주의의 죽음을 상징했다. 라오디게아적 재림주의의 죽음은, 열방이 분노했으나 2001년 9월 11일에 제지되던 때에 시작되어 곧 다가올 일요일법에서 끝나는 14만 4천인의 인침 기간 동안 발생한다. 그들의 죽음은, 불순종한 선지자가 보여주듯, 결코 "조롱자들의 모임"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직접적인 통보를 받았음에도 타락한 개신교의 방법론으로 되돌아갔기 때문에 초래되었다.

그들의 죽음은 십사만 사천의 인침 역사 속에서 일어난다. 하나님의 백성이 인침을 받자마자 멀하는 천사들이 그들의 일을 시작한다. 2001년 9월 11일부터 곧 임할 일요일법령까지 산 자에 대한 심판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는 심판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며, 백성의 수호자가 되도록 세워졌으나 네 세대에 걸쳐 그 책임을 버린 늙은 자들에게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 기간에 인침을 받는 이들은 열방에게 높이 들려지는 기치이다. 그들은 곧 임할 일요일법령 이전에 인침을 받는데, 이는 하나님의 다른 양무리가 경고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일요일법령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인을 가진 남녀들을 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성령의 역사는 세상으로 하여금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확신하게 하는 것이다. 세상은 오직 진리를 믿는 자들이 진리를 통하여 성화되어, 높고 거룩한 원칙에 따라 행하며,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자들과 그것을 발로 짓밟는 자들 사이의 구별의 선을 높고 고상한 의미에서 드러내 보일 때에만 경고를 받을 수 있다. 성령의 성화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과 거짓된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 사이의 차이를 분명히 나타낸다. 시험이 이를 때에는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 그것은 곧 일요일을 지키는 것이다. 진리를 들은 후에도 계속하여 이 날을 거룩하게 여기는 자들은, 때와 법을 변경하고자 생각한 죄의 사람의 표지를 지니는 것이다." Bible Training School, 1903년 12월 1일.

라오디게아적 재림주의의 죽음은 늦은비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늦은비는 2001년 9월 11일에 내리기 시작하여 곧 임할 일요일법령의 때에 한량없이 부어지며, 그때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인침받은 백성을 세우신 후 기치로 높이 드신다.

그 시기에 짐승의 표를 받을 준비를 하며 결국 받게 될 라오디게아 상태의 재림교인들은 에스겔 8장에서 해에게 절하는 스물다섯 사람으로 대표된다. 그들은 그 역사에서 참된 파수꾼들이 선포하는 참된 늦은비 기별을 위조한 것으로서, 에스겔의 거짓 '평안과 안전'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이다. 그 거짓 늦은비 기별의 기초는 다니엘서의 'the daily'를 그리스도의 상징이라고 동일시하는 것인데, 실제로 그것은 사탄의 상징이다. 그 거짓된 기초적 믿음은 '예루살렘의 백성을 다스리는 조롱하는 자들'이 자기들의 굳지 않은 벽을

세우기 위해 사용하는 교리다.

"the daily"를 그리스도의 상징으로 규정한 것은 1931년에 "거짓"에 의해 역사적으로 확립되었다. 그때부터 가짜 동전과 보석으로 된 허술한 벽이 세워졌다. 그 "벽"은 그의 바닥을 철저히 정화하기 위해 먼지술을 든 남자가 도착할 때 무너지게 되어 있다. 그 정화는 "폭풍 같은 바람"(2001년 9월 11일의 나귀)과 "넘쳐흐르는 소나기"(곧 다가올 일요일 법령의 사자) 사이의 예언적 역사 기간에 이루어진다. 그 역사 속에서 불순종한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고 베델의 거짓 선지자의 무덤에 묻힌다. 화이트 자매는 예언의 "벽"을 하나님의 율법으로 규정한다.

선지자는 여기서, 진리와 의에서 전반적으로 이탈한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되는 원칙들을 회복하려는 한 백성을 묘사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생긴 틈을 보수하는 자들—그 율법은 그분이 택하신 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그들 주위에 두르신 성벽이며, 정의와 진리와 순결의 계명들에 대한 순종이 그들의 영원한 보호책이 된다.

“분명한 의미의 말로 예언자는 성벽을 세우는 이 남은 백성의 구체적인 사역을 지적한다. ‘네가 안식일에 네 발을 돌이켜 내 성일에 네 뜻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즐거움이라, 여호와와 거룩한 날을 존귀하다 일컬으며, 그 날을 존귀히 여겨 네 길을 행하지 아니하며, 네 쾌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때에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요,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려 주고 네 조상 야곱의 유업으로 너를 먹이리니, 이는 여호와와 입을 말씀하였음이라.’ 이사야 58:13, 14.” 선지자와 왕, 678.

재림주의의 네 번째 세대는 한 권의 책의 출판으로 시작되었고, 이는 세 번째 세대의 시작과 마찬가지로. 세 번째 세대는 W. W. 프레스콧의 The Doctrine of Christ가 출판되면서 시작되었고, 그 세대는 Questions on Doctrine의 출판으로 끝났다. The Doctrine of Christ는 밀러주의 예언 기별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복음을 제시했다. Questions on Doctrine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성화의 사역을 부정하는 복음을 제시했다. The Doctrine of Christ는 예언적 역사에 대한 (chazon) 환상의 빛을 제거했고, Questions on Doctrine는 그리스도의 '나타남'에 대한 (Mareh) 환상의 빛을 제거했다.

그 두 책 사이에 '담무스를 위해 우는 여자들'로 상징되는 거짓 늦은비 메시지가 전개되었다. 바로 그 역사 속에서 '1931년의 거짓말'이 주창되었다. 그 세 번째 세대(가증함)는 또한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의 타협으로도 상징된다. 세 번째 교회에서의 타협의 상징은 신학과 의학의 규칙을 강요하던 세속 기관들로부터 인가를 추구하는 일을 가리킨다. 진리의 타협이 이루어진 것은 세 번째 세대였으며, 그 가운데는 변질된 사본들에서 번역된 성경들의 도입과 사용에 대한 강조가 포함되어 있었다.

1957년에 『Questions on Doctrine』라는 책은 복음의 근본 진리를 사실상 포기한 것이었다. 그 진리란 예수께서 우리를 죄 '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지,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가톨릭과 배도한 개신교의 가르침은 사탄의 영원한 주장이다. 사탄이 "너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주장할지라도,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으며 또한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 사람은 죄를 이길 수 없으며, 그러므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사람들을 마치 순종하는 로봇으로 마법처럼 변모시키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 없다는 타락한 배도적 개신교의 견해가 『Questions on Doctrine』의 가르침 속에 포함되었다.

1957년에 라오디게아적 재림교의 네 번째 세대가 시작되었고, 그 회반죽하지 않은 담(율법)이 세워졌다. 이로써 십사만 사천 명의 인침의 때가 끝날 때 스물다섯 명의 원로들이 태양에게 절할 수 있게 하는 논리가 마련되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믿음인 그 회반죽하지 않은 담은, 머지않아 임할 일요일 법령에서 정교분리의 '담'이 제거될 때 쓸려 나간다. 일요일 법령은 넘쳐흐르는 소낙비, 곧 이사야의 표현대로 넘치는 채찍이며, 그 홍수는 곧 미국에서 임할 일요일 법령에서 시작된다.

미국에서 일요일법이 시행될 때 원수(교황)가 "홍수같이"("넘쳐 흐르는 재앙") 들어오며, 그때 "기치"가 그를 대적하여 들려진다. 그때 "the daily"의 그릇된 적용 위에 라오디게아적 재림교회가 쌓아 올린 "허술한 담"이 쓸려나간다.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대적에게는 분노를, 그 원수에게는 보응을; 섬들에게는 보응하시리라. 그러므로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며 해 돋는 곳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하리니, 원수가 홍수같이 밀려올 때에 여호와의 영이 그를 대적하여 기치를 들리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할 것이요 야곱 가운데에서 허물을 떠난 자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게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러하니, 네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가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네 입에서와 네 자손의 입에서와 네 자손의 자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짙은 어둠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일어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네 빛으로, 왕들은 네 떠오름의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이사야 59:18-60:3.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백성 위에 임할 때 이방인들은 빛으로 나아오며, 이것은 원수가 홍수처럼 밀려올 때 일어난다. 그 원수가 들이닥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대적하여 기치(깃발)를 들어 올리신다. 이방인들이 반응하는 그 사람들 위에 있는 주의 영광은 그분의 품성이며, 그분의 품성은 죄를 범하지 않는다. 남녀가 죄를 이길 수 없다고 가르치는 것은 거짓된 평안과 안전의 기별이다. 그 기별은 2001년 9월 11일에 임한 참된 늦은비 기별의 때에 선포되는 거짓 늦은비 기별이다. 그 거짓 기별은 '담'인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거짓 기별이다. 그 거짓 교리는 라오디게아적 재림주의의 네 번째이자 마지막 세대의 도래를 표시한 'Questions on Doctrine'라는 책으로 대표된다.

2001년 9월 11일, 라오디게아적 재림주의의 네 가지 반역이 자기 조상들의 죄를 가지고 그 마지막 세대를 시험하려 찾아왔다. 그날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예레미야의 옛 길로 돌아가라고 지시하셨는데, 이는 그들이 밀려의 보석들로 표현된 기초적 메시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은 예레미야가 '안식'이라고 부른 늦은 비를 발견하게 될 것이었다. 옛 길로 돌아가라는 그 부름은 1863년의 반역을 낳았던 시험의 반복이었다.

2001년 9월 11일, 즉 이사야가 말한 '동풍과 거친 바람의 날'에, 요한계시록 14장 3절과 또한 15장 3절에서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포도원의 노래'를 불러야

했다. 그 노래는 그때 옛 선택 백성이 지나쳐지고 있음을 밝히는 라오디게아 기별이었다. 이는 하나님께서 포도원이 마땅히 맺어야 할 열매를 맺을 남녀에게 자신의 포도원을 넘겨주시는 과정에 계셨기 때문이다. 그 포도원 기별은 곧 라오디게아를 향한 기별이며, 1888년의 반역 때 존스와 왜그너가 제시했던 기별이다.

2001년 9월 11일에 늦은 비가 시작되었고, 하박국 2장에 대한 논쟁 속에서 두 개의 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한 한 부류가 지목된다. 그들은 예레미야가 말한 옛 길로 돌아갔고, 이사야가 '줄 위에 줄'이라는 방법론을 가진 자들에게 임한다고 밝힌 '쉽과 새롭게 함'을 받고 있었다. 그들이 관여했던 논쟁은 '담무스를 위하여 우는 여인들'로 대표되는 거짓 늦은 비 메시지에 반대하는 것이었는데, 그 메시지는 잠들어 있는 라오디게아 사람들을 평안과 안전의 메시지로 안심시키고 있었다.

'평안과 안전' 메시지는 남녀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직 그들을 그들의 죄 '가운데서만' 의롭다 하실 수 있고 또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한다. 조롱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평안과 안전' 메시지가 존스와 왜그너가 제시했던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의 참된 메시지라고 주장하지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이를 또한 거룩하게 하신다는 진리는 빠뜨린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들의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죽으셨기 때문이다.

2001년 9월 11일은, 교회와 이 땅의 가증한 일들로 인해 탄식하며 울부짖는 자들로 대표되는 한 부류가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것으로 끝맺는, 십사만 사천의 인침 기간의 시작을 알렸다. 또 다른 부류는 셋째 천사의 마지막 사역이 이루어지는 성전에서 등을 돌리고 태양에게 절하고 있다. 밀러파의 역사는 셋째 천사 운동의 역사를 보여 주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 절정은 늦은 비의 기별과, 그것을 먹기로 선택하는 자들에게서 생겨나는 경험에 관한 것이다.

우리는 다음 글에서 이 연구를 계속할 것이다.

미니애폴리스에서 와그너와 존스 형제들을 통해 전해진 주님의 메시지에 맞서 나타난 반대의 상당 부분은, 선입견을 버리고 이 진리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사탄은 그 반대를 부추김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셨던 성령의 특별한 능력이 우리 백성에게서 상당 부분 차단되도록 만드는 데 성공했다. 원수는 그들이 오순절 이후 사도들이 진리를 선포했던 것처럼 진리를 세상에 전하는 데 있어 그들에게 주어질 수도 있었던 그 효과적인 역량을 얻지 못하게 막았다. 그 영광으로 온 세상을 밝힐 빛은 거부되었고, 우리 형제들의 행동으로 인해 그 빛은 상당 부분 세상에 전해지지 못했다. 선택된 메시지, 1권, 235쪽.